

이덕일의 '역사의 창'



진영론과 탕평론

우리 사회는 정치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의 성격이 무엇이든지간에 양 극단으로 갈린다. 진영(陣營)이란 표현까지 쓰는데 진영이란 군대가 진을 친 곳을 뜻하는 군사용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본다는 뜻이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개의 자를 가지고 사안을 본다. 반대 측 진영의 사람은 밀리미터(mm)의 자를 들이대 없는 죄도 찾아내지만, 자기 진영의 사람은 미터(m)의 자로 재어 면죄부를 준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기는 커녕 이런 관심이 현대 정치의 핵심인 정당정치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그 판단 기준이 대한민국이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어야지, 지지하는 정파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옛날 선현들의 말대로 왕도(王道)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서경(書經) 홍범(洪範)장의 '황극(皇極)조에 '치우침이 없고 당이 없으니

왕도는 탕평하며, 당이 없고 치우침이 없으니 왕도는 평평하다(無偏無黨, 王道蕩蕩, 無黨無偏, 王道平平)'라는 구절이 있다. 왕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편애하는 당(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당은 현대적 의미의 '당'이 아니라 '무리'라는 뜻이다. 이 구절에서 탕평(蕩平)이란 말이 나왔다. 탕(蕩)이란 치우친 것을 쓸어버린다는 뜻이고, 평(平)은 바르게 다스린다는 뜻이다.

조선에서 탕평책을 추구했던 임금들은 숙종·영조·정조 등이 있는데, 정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숙종이나 영조는 구호로는 탕평을 내세웠지만 국왕 자신들이 특정 정파를 편드는 편당심(偏黨心)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정조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 벽파도 정치의 상대로 삼는 탕평책을 펼쳐 나갔지만, 결국 노론 벽파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의문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조선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원래 왕조국가는 당을 만드는 것을 엄금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서기전 475

~222)의 일을 기록한 '전국책(戰國策)에는 각국을 다니며 유세했던 소진(蘇秦)이 조(趙)나라 속후(肅侯)에게 유세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소진은 "신이 듣기에 현명한 군주는 의심을 끊고 참소를 제거하며, 떠도는 말의 자취를 가리고, 봉당(朋黨)의 문을 막는다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봉당 자체를 나라를 좁먹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계급이 집단으로 형성된 북송(北宋) 때부터는 사대부들이 당(黨)을 결성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대신 당에 대한 성격 논쟁이 활발해졌는데 그중 하나가 구양수(歐陽修)의 '봉당론(朋黨論)이다. 구양수는 "군자(君子)는 군자와 더불어 도(道)를 행하지만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추구한다"면서 대의를 추구하는 군자들의 당을 진봉(眞朋), 사익을 추구하는 소인들의 당을 위봉(僞朋)으로 구분했다. 위봉은 군주가 멀리해야 하지만 진봉은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자신들의 당은 진봉(眞朋)이고, 상대당은 위봉(僞朋)이라고 주장하

기 마련이었다.

조선 후기 당쟁이 격화되던 시대를 살았던 '택리지(擇里志)의 저자 이증환(李重煥)은 소론이었는데, 영조 즉위 후 정권을 잡은 노론에 의해 사형 위기까지 몰렸다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후 이증환은 정치를 멀리한 채 전국을 다니면서 살 만한 곳을 찾았고 '택리지'를 썼다. 이 책에서 이증환은 "하늘에 가득 찬 죄를 지은 사람도 다른 당파의 탄핵을 받으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따지지 않고 떼거리로 일어나 변호하고, 큰 덕을 쌓은 사람도 자기 당파가 아니면 먼저 그 사람에게 나쁜 점이 있는지 살핀다"고 비판했다. 마치 진영론에 빠진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무릇 사대부가 사는 곳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역시 "진영론에 빠진 사람들이 사는 곳치고 인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바꾸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 국민 각자가 왕이라는 생각으로 탕평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더위 피하려다 만나는 '냉방병'



김민성 수완청연한방병원 병원장

냉방병은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정의되는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인데, 냉방으로 인해 차가워진 실내에 오래 머물러서 생기는 호흡기 증상, 두통, 신경통, 소화 불량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냉방병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호흡기 증상 때문에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목이 답답하거나 가래가 끈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코 막힘이 주로 나타난다.

전신 증상으로는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몸의 한기와 더불어 근육통도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소화 불량과 하복부 불쾌감, 설사 등과 같은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생리 주기가 달라지거나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다.

냉방병에 걸리는 첫 번째 원인은 급격한 실내외의 온도차이다.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외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더운 여름이 되면 높은 온도에 적응을 한다.

이 상태에서 낮은 온도의 실내에 머물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 혈액 순환과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자율신경계 불균형과 혈액 순환 이상은 두통과 설사, 월경 불순, 부종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번째 원인은 레지오넬라균이다. 이는 오염된 에어컨 냉각수에서 자라 에어컨이 가동될 때 공기 중으로 퍼져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 초기에는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을 수반하는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심하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냉각기를 사용하는 건물 전체에 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의학적으로 냉방병은 동의보감에서 여름병에 대해 언급한 '중서(中署)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서의 한 종류인 '음서(陰暑)의 경우 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바람을 쐬거나 찬 것을 많이 먹어 속이 차가워져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현대 냉방병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이향산(二香散)이나 광향정기산(藿香正氣散)으로 치료한다고 되어 있다.

두 처방은 모두 땀으로 냉기를 몰아내어 비위의 기운을 따뜻하게 해서 여름철

에 발생한 두통, 발열 등의 감기 증상에도 북돋, 설사 등의 소화기 장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냉방병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온도 관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실내와 온도 차이를 5-6도 내로 맞추고, 2-4 시간 간격으로 5분 이상 환기를 시키며, 2주에 한번씩은 에어컨 필터를 세척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냉방병은 몸이 허약할수록 잘 걸리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땀을 많이 흘려 몸의 기운이 떨어졌다면 인삼, 맥문동, 오미자로 이루어진 생맥산으로 몸안의 양기와 진액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찬 음식이나 찬 음료를 먹기보다는 따뜻한 물, 생강차, 대추차 등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복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의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고

광주 시민의 선도적 소명



김용하 용아 박용철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만 듣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신의 주관적 기준만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공격하는 형태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공리적인 언행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이념이나 당파의 가치적 판단에만 의존하여,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대화나 토론 자체를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나가는 행태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일부 유튜브나 SNS상의 댓글들을 보면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관계에서도 자기와 견해가 다르거나 판단 기준이 다를 때는 협박한 막말을 써가면서 공격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공권력을 행사하는 장관과 검찰수장 간,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조계나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막가파식

으로 다루거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고 토론하면서,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수정하고 따를 수 있는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남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독선이나 편향된 절대주의적 사고는 민주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의 영향에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 성향에 따라 모든 사고와 행동이 종속되고, 정치는 이념과 지역에 따라 확연히 구획되어 있어 갈수록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세상이 SNS 등 열려 있는 온라인 공간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기리끼리의 소통 공간을 설정하고, 오히려 더 일방적으로 자기 편향 의식이 공고화되는 편 가르기로 변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보편화된 상식과 열린 사고에 의한 배려와 소통이 절실한 사회이다. 누구도 이 사회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 사상, 독선적 편견으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인간의 본래적 선한 의지와 이성적 판단 아래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지향해야 한다.

지나친 이념적 갈등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의 불안 속에서 각종 음험한 상호 비방과 인지적 오류의 편견까지 겹쳐 '내 편 내 편을 가르려는 몰인간적인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견인적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민주, 인권, 평화의 분향이라고 자부하는 광주 시민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들 각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社說

광주 군공항 이전 '급물살' 새 해법 나왔다

답보 상태에 빠진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당초 제시된 지원금 외에 의대 설립과 공공기관 이전 등 대형 인센티브를 함께 제공하는 '빅딜'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이러한 방안은 엇그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장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김산 무안 군수 등이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 강 정무수석은 그동안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벗어나 파키지 빅딜 방안을 제시했다. 즉 광주 군공항이 무안으로 이전된다면 기존 4500억 원 규모의 지원 외에 전남 의대 설립 및 부속 병원 유치, 공항공사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서남해안 풍력단지 배후시설 조성과 산단 유치 지원도 함께 제시됐다.

특히 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단체 간 상상 모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이 군공항 이전 조건에 합의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이

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 결론이 도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 지역 광역단체장과 시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전 대상 후보지 기초단체장 등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물꼬를 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에도 양 시도지사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회동이 있었지만 광주와 전남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청와대와 정치권까지 합세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정부와 광주시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계속 논의하기로 해 군공항 이전 논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보다 진전된 해법이 제시된 만큼 전남도와 무안군도 새로운 협의의 틀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군공항 이전은 광주와 전남 지역 상생을 위해서도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로 문 닫는 작은영화관 살릴 대책 없나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영화 등 문화 예술 분야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관람 특성상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밀집할 수밖에 없는 영화계는 더욱 심하다. 그제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0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체 극장 관객 수는 3241만 명으로 전년과 같은 기간(1억 932만 명)에 비해 70.3%나 줄어들었다. 매출액도 273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6569억 원) 대비 70.6%가 줄었다.

전남 지역에 세워진 '작은영화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인가 공익적 비영리법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던 장흥·곡성·화순·보성의 작은영화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 해당 지역 작은영화관 홈페이지에는 3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화관 영업을 일시 중지합니다'

라는 휴관 공지가 떠 있었다. 작은영화관은 정부가 영화관이 없는 시골 마을 주민을 위해 만든 문화시설이다. 그동안 전남 일급 곳을 비롯해 전국의 작은영화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장흥 정남진 시네마는 지난해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작은영화관은 문화예술에서 소외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다. 언제까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대도시까지 나가야 할 것인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6월 3주간 극장도 예술영화관을 대상으로 6000원 할인 쿠폰 130만 장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어떤 일인지 농·어촌 작은영화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사 위기에 놓인 작은영화관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無等鼓

춘추전국시대 명장인 염파와 인상의 여 이야기는 사기열전에 상세히 적혀 있다. 사마천은 조나라에서 재상 대우를 받던 그들과는 달리 일개 조세 담당 관리였던 조사(趙奢)라는 인물을 여기에 끼워 넣어 매우 중히 다루고 있다.

조사는 공사(公私) 구분이 철저한 사람이었다. 하급 관리였던 그는 당시 막강한 권력자였던 평원군의 집에서 조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 가신들을 모두 처형해 버렸다. 평원군이 대노했지만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공(公)과 사(私)

이제는 보편화된 상식과 열린 사고에 의한 배려와 소통이 절실한 사회이다. 누구도 이 사회를 특정 이념이나 정치 사상, 독선적 편견으로 이끌어 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인간의 본래적 선한 의지와 이성적 판단 아래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지향해야 한다. 지나친 이념적 갈등이나 코로나 같은 질병의 불안 속에서 각종 음험한 상호 비방과 인지적 오류의 편견까지 겹쳐 '내 편 내 편을 가르려는 몰인간적인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명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견인적 역할을 해야 할 책무를 민주, 인권, 평화의 분향이라고 자부하는 광주 시민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들 각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수준 높은 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은 부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조괄은 진나라와의 장평대전에서 대패해 죽었다. 결국 나라도 망했다. 노자·장자·한비자 등 중국의 사상가들 역시 공(公)과 사(私)에 대해 골똘히 생각했던 것 같다. 어떤 이는 이를 대립적인 명제로 또 어떤 이는 별개의 명제로 다뤘다. 다만 이들은 모두 공공적 가치를 개인적인 가치 앞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동양에서 공과 사의 구분을 중시하는 데 비해 서양에서는 업무(Business)와

재미(Pleasure)가 뒤섞이는 것을 금기시한다. 업무를 보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즐거움 등 포괄적인 의미의 '재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공사를 구분하라'는 뜻의 영어 표현(Don't mix business with pleasure)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우리 정치인들은 유독 공사 구분에 취약하다. 권력에 취해 개념을 상실하거나 사적인 재미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사 구분을 못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 혁신의 첫걸음 아닐까.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